

소수·주변·방언의 다른 이름 '아시아' 재조명

어제 그곳 오늘 여기

김남일 지음

“동아시아 주요 도시들은 저마다 다른 처지에서, 또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근대를 맞이했다. 가장 먼저 근대를 맞이한 것은 과거와 가장 명징한 단절을 선택했기에 가장 먼저 근대를 맞이했는지도 몰랐다. 그때까지 존재조차 희미했던 천황이 ‘얼굴’을 지닌 현인신(現人神)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자, 과거는 일시에 무너져 내렸다. 사무라이는 칼을 놓았고, 중들은 절에서 쫓겨났다. 도쿄는 스스로 탈아입구(脫亞入歐)의 슬로건을 내세웠다. 동아시아의 다른 도시들은? 베이징과 서울과 하노이는 완강히 빗장을 걸어 잠갔다. 칼과 창 몇 자루와 자존심으로 군함과 대포를 상대하려 했다. 분투했고, 장렬했다.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처참한 능욕이었다. 강제로 당한 탈아입구.” (본문 중에서)



“아시아문화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김남일 소설가는 아시아를 이렇게 정의한다. “소수, 주변, 방언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해도 늘 소수였고 늘 주변부였다. 더구나 영어가 모국어 아닌 이상 자신들이 쓰는 언어는 늘 방언 취급을 당했다. 작가는 최근 아시아 이웃 도시를 근대 문학이라는 키워드로 조명한 책을 발간했다. ‘어제 그곳 오늘 여기’는 사이공과 하노이, 상하이, 도쿄, 타이베이, 오키나와, 서울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담겨 있다. 글 사이사이마다 루쉰, 나쓰메 소세키, 이광수, 앙드레 말로, 조지 오웰, 헤르만 헤세, 마그리트 뒤라스가 그린 아시아의 풍경들이

스며든다.

작가가 처음 외국에 나간 것은 1993년이었다. 해외여행 자유화 덕분에 여러 나라를 가곤 했는데 첫 번째 일본 여행 이후 수시로 국제선을 타고 밖으로 나갔다. 여러 번의 출타로 작가의 의식 속에는 ‘거기, 아시아가 있었다’는 선언적인 가치가 자리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번 책은 기행문이라는 카테고리로 묶기에는 스펙트럼이 넓다. 한 편의 독후감일 수도, 몽상의 기록일 수도 있다. 작가 앞에 놓인 지난 시절의 여정과 그것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진들은 아시아의 실체를 담보한다.

작가가 방문했던 도시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곳은 오키나와이다. 비극의 정서가 남아 있는, 일찍이 일본 본섬과는 다른 문화와 풍속을 간직한 고장이다. ‘복속의 설움과 태평양전쟁의 상흔이 깊이 새겨진’ 터라, 일본은 결정적인 순간 오키나와를 버렸다는 것이다. 한때 군사기지로 전략했던 점, 더욱이 그곳에는 ‘기지촌’의 정서가 남아 있다.

타이베이에서는 일반적인 대만의 모습과는 다른 면을 본다. 대만의 근대화는 일본의 식민통치를 통해 가속화됐다. 서양의 관습은 물론 문화예술 사조, 음악과 연극 등이 일본어로 전수되고 학습했다는 견해다. 하지만 일본이 빠져나간 뒤 대만 현대사 비극인 2·28 사건이 일어났다. 본성인과 외성인의 갈등 등이 문화예술 저변에 깔리기 시작했다.

‘통일 베트남의 자존심’ 하노이는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 무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지난 세기 큰 전쟁을 세 번이나 끝냈다는 자부심이 ‘평화의 수도 하노이’라는 수식어로 빛을 발했다. 그러나 프랑스, 미국이 관통한 침탈의 흔적이 하노이, 사이공에 남아 있다. 통일이 될 때까지 베트남은 극약무도한 전쟁을 감당해야 했다.

저자는 말한다. 경계를 넘어 오갔던 아시아 여정은 어쩌면 관습의 산물이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국가’에 하도 지친 나머지 어떻게든 ‘국가 바깥’으로 달아나려고



대만의 타이베이에 있는 2·28 평화기념비.

만 했던 내 젊은 시절부터의 관습! 하지만 이제 나는 유목민이 되기 위해 반드시 몽골 초원을 가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되뇌인다.

〈학교재·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땃글시인’ 제페토가 전하는 삶의 모습

우리는 미화되었다

제페토 지음

지난 2010년 인터넷에 등장한 한 편의 시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철강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십씨 1000도가 넘는 쇠물의 용광로에 빠져 흔적도 없는 없이 사라져 사망한 기사에 땃글 형식으로 달린 시였다.

“광염에 청년이 사그라졌다/그 쇠물은 쓰지 마라/자동차를 만들지 말 것이며/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바늘도 만들지 마라/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그 쇠물 쓰지 말고/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살았을 적 얼얼 흙으로 빚고/쇠물 부어 빗물에 식거든/정성으로 다듬어/정문앞에 세워주게/가끔 엄마 찾아와/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자, 하계”

“그 쇠물 쓰지 마라”는 시를 쓴 이는 ‘땃글시인’으로 불리는 제페토였다. 이후 그의 땃글시 100여편이 묶여 같은 제목의 책으로 출간됐다.



제페토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쓴 작품 129편을 모아 두번째 시집 ‘우리는 미화되었다’를 펴냈다. 세상과, 사회와 맞닿아 있는 그의 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우리의 안부를 묻기도 한다.

“짐승에게 있는 것이/우리에게도 있어/사람을 다치게 한다//그는 달아나는 표적이었다/열은 미소만 비쳐도/물러가 목을 물고/발톱을 찔러 날지 않았던가//우리의 형상은 신뢰할만한가? (종락)/슬프다/우리는 미화되었다.” 책 제목 ‘우리는 미화되었다’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가수 설리의 기사에 달린 땃글시 ‘야수들’에서 따왔다.

코로나 19, 남북정상회담, 백남기 농민의 죽음, 세월호 참사, 5·18민주화 운동과 전두환, 대통령 탄핵 등 그의 시는 여전히 역동적인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가슴 따뜻한 해주는 글들도 많다.

유성우가 쏟아진다는 기사에는 ‘지체 없이/소원을 빌어보라//집에만 한 운석이 갈광질광하지 말고/우리 오랜 고통에 쏟아지게 (소원)라는 시를 남겼다. 또 치매로 기억을 잃은 영국 남성이 아내에게 청혼해 두번째 결혼식을 올렸다는 기사에는 ‘설레신다니 말입니다/처음 만난 그날처럼/팔리신다니 말입니다/잠자리에 드는 이 밤이/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이른 아침/ 뒤적이는 소리에 깨어나/수줍음도 없이/젖눈에 반했어/백년해로합시다, 하고/속삭여주신다면/처음 만난 그날처럼 /오, 사랑이여 (천만번의 청혼)라는 땃글시를 썼다.

저자는 책의 서문에 ‘땃글창은 여론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떠들썩한 광장이다, 누구나 오가며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는 저잣거리이자 담배락이라 생각한다고 썼다. 그는 “땃글의 부작용을 오랫동안 지켜본 땃글가. 뉴스를 읽고 거침없이 글을 쓴 과거와 달리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또 ‘말(글)은 가시 돌진 생명체다. 밖으로 내보내기에 앞서 구부리고 꺾고 표면을 다듬지 않으면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며 “내 글쓰기가 선행 땃글 쓰기 운동의 일환은 아니지만, 땃글이 미질 영향을 생각하며 매 순간 조심한다”고 덧붙였다.

〈수오서재·1만 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프랑스 왕실의 근친혼 이야기=수원대 프랑스어문학과 교수인 저자가 ‘왕실의 근친혼’을 키워드로 색다르고 매력적인 프랑스사, 나아가 촘촘히 얽힌 유럽사의 이면을 들려준다. 프랑스의 왕조가 시작된 987년부터 루이 16세가 대혁명 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1793년까지 800여 년간 이어진 프랑스 왕실 근친혼의 역사적·정치적 배경을 설명하며 사례를 짚어냈다. 〈푸른역사·1만8000원〉

▲빛의 핵심=물리학자 고재현의 과학이야기다. 끊임없이 명멸하는 빛의 의미와 빛에 기초한 광기술의 현재를 알기 쉽게 안내해준다. 저자는 태양을 떠난 빛은 우주공간을 약 8분 동안 날아와 지구에 도착한다며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 항상 8분 전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이 ‘8분간의 여행’으로 지구는 생명을 얻었다고 설명한다. 〈사이언스북스·2만2000원〉

▲신문피라미드사회=민주화 이후에도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가 줄어들기는 커녕 더욱 커져가는 이유는 대체 뭘까? 저자 허승우는 우리 사회가 기존의 기득권 구조가 낳은 격차의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문피라미드’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또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 영역은



물론 시민운동마저도 ‘능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상북스·1만5000원〉

▲마음 곁에 두는 마음=시인의 감성으로 어른들에 따뜻한 위로로 전하는 산문집이다. ‘아홉 살 마음 사전’ 시리즈의 저자인 박성우는 무심한 표정으로 살아가는 어른들에 소중한 날들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권한다. 저자의 글에, 무심한 듯 부드러운 선으로 일상의 우연한 순간을 세밀하게 포착해내는 임진아 작가의 그림이 글마다 더해진다. 〈미디어창비·1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왕건부터 정도전까지 고려 역사 탐험=역사가 낯선 어린이들이 통사의 흐름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위인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거란과 몽골에 당당하게 맞섰던 감감찬과 김윤후, 자주 국가의 위기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던 공민왕을 비롯해 최충, 이규보, 정도전 등 475년 고려사의 큰 줄기를 인물별로, 주제별 수록했다. 〈뜨인돌어린이·1만2000원〉

▲사자를 사랑해야 하는 10가지 이유=사자는 어떤 동물일까? 사자는 왜 사라져 가고 있을까? 사자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자의 여러 장점 중에서 10가지를 골라 소개하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농동자, 털 뭉치가 달린 꼬리 등 각 신체 부위에 관련된 이야기들

담았다. 사자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며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소개한다. 〈보랏빛소어린이·1만2000원〉

▲최고 예술가는 바로 나야=잭슨 폴록, 피카소에 이어 제프 쿤스까지 현대 미술을 아우른다. 어느 날, 빌리와 동네에 로이라는 새로운 예술가가 이사를 왔다. 빌리와 로이는 누가 동네의 최고 예술가인지 경쟁하면서 서로를 자극하고, 때로는 함께 다독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팝 아트’의 등장 배경을 각 주인공의 이야기로 풀어나며 ‘예술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다룬다. 〈논장·1만3000원〉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